

‘차세대 K팝 대세’ 에이티즈 “성장티즈, 증명할게요”

8개월 만에 컴백...온라인 쇼케이스

미니 6집 앨범 ‘제로 : 피버 파트 2’

“수식어를 새로 얻는 것도 좋지만, 이미 있는 수식어가 좋아요. 특히 ‘성장티즈’(성장+에이티즈)라는 말이요. 이번 새 앨범으로 그 수식어를 또 한 번 증명하고 싶어요.”(산)

차세대 K팝 그룹 ‘에이티즈(ATEEZ)’가 약 8개월 만에 컴백했다.

지난 1일 미니 6집 앨범 ‘제로 : 피버 파트 2(ZERO : FEVER Part.2)’를 발매하며 다시 주가를 높이고 있다. 선주문량 35만 장을 넘겼고, 멜론, 벅스, 지니 등 실시간 차트에 상위권에 진입했다.

2일 온라인으로 열린 쇼케이스에서 홍중은 “누가 봐도 에이티즈는 이런 노래라고 생각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만들었다”면서 “노래

와 무대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에이티즈는 최근 세계적으로 주목 받고 있다. 글로벌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 ‘스포티파이’에서 누적 스트리밍 수 5억회를 돌파했고, 미국 트위터 내 가장 많이 트윗된 뮤지션 5위에 이름을 올렸다.

최근 공식 소셜 미디어 팔로워 수는 200만 명을 넘겼다. 또 이번 앨범은 미국, 영국, 네덜란드, 인도네시아 등 36개 국가의 아이튠즈 톱 앨범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다.

타이틀곡 ‘불놀이야(I'm The One)’는 브라질, 페루, 러시아, 필리핀 등 20개 국가에서 아이튠즈 톱 송(ITunes Top Songs) 1위에 올랐다. ‘불놀이야’ 뮤직비디오 역시 유튜브 ‘뮤직

비디오 트렌딩 월드와이드’와 ‘비디오 트렌딩 월드와이드’에서 각각 1위를 달성했다.

“불놀이야는 화끈한 무대로 유명한 에이티즈가 ‘진정한 불꽃’을 피우겠다는 메시지를 담은 앨범이다. 에이티즈는 데뷔 앨범부터 이어져온 ‘트레저’ 시리즈에 이어 지난해 새로운 막을 연 ‘피버’ 시리즈로 탄탄한 세계관을 이어왔다.

중요는 ‘불놀이야’에 대해 “진정한 불꽃을 피우는, 저희의 열정을 보여주는 이야기를 제일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타이틀곡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에이티즈는 오는 4월 방송 예정인 케이블 음악 채널 엠넷의 보이그룹 ‘킹덤’ 출연으로 상승세를 타겠다는 각오다. 이 프로그램에는 한류듀오 ‘동방신기’가 MC를 맡았다.

홍중은 “얼마 전에 첫 대면식 무대를 진행했는데, 생각했던 이상으로 선배 그룹들이 다 멋있고 좋은 무대를 보여주셨어요. 부담도 있지만, 최선을 다하면서 많이 배우고 싶어요. 저희



의 색깔도 더 많은 분들께 알려드릴 것”이라고 다짐했다.

공유·박보검 ‘서복’, 결국 극장·티빙 동시 공개

다음달 15일 공개

배우 공유, 박보검의 만남으로 화제를 모은 영화 ‘서복’이 다음달 15일 공개된다.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 티빙(TVING)의 오리지널 콘텐츠로 공개되며 극장에서도 개봉한다.

‘서복’은 인류 최초의 복제인간 ‘서복’을 극비리에 옮기는 생애 마지막 임무를 맡게 된 정보국 요원 ‘기현’이 ‘서복’을 노리는 여러 세력의 추적 속에서 특별한 동행을 하며 예기치 못한 상황에 휘말리게 되는 이야기를 그린다.

영화 ‘건축학개론’의 이응주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으며 공유가 생애 마지막 임무를 맡은 전직 정보국 요원 ‘기현’ 역, 박보검은 인류 최초의 복제인간 ‘서복’ 역으로 분했다.

CJ ENM 영화사업본부 측은 “코로나19로 인해 콘텐츠에 대한 소비자의 시각과 니즈가 급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서복’ 역시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더 많은 관객과 만나기 위해 티빙에서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러 “‘서복’은 티빙뿐 아니라 극장 개봉도 동시에 이뤄진다”며 “관객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하고 개봉작 부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극장에도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미스트롯2’ 결승 진출 7명 대국민 투표 독려 인증샷

오늘 방송...톱7이 진(眞) 놓고 마지막 대결 펼쳐



가수 양지은, 홍지윤, 김다현, 김태연, 김의영, 은가은, 별사랑이 TV조선 ‘내일은 미스트롯2’ 결승전 2라운드 대국민 투표독려하는 사진을 공개했다.

1번 은가은은 긴 생머리를 내린 채 상큼한 미소를, 2번 김다현은 머리 위에 손가락을 올린 포즈로 깜찍한 앙크를 건네고 있다.

3번 양지은은 쾌청한 환한 미소를, 4번 홍

지윤은 구성진 노래와는 상반된 단아한 미소를 드러냈다.

5번 김의영은 이전과는 달랐다 함박 웃음을, 최연소 결승진출자 김태연은 6번을 든 채 사랑스러운 면모를 드러냈다. 7번 별사랑은 썩스틸러라는 별명답게 새초롬한 미소로 변호를 강조했다.

4일 방송되는 ‘미스트롯2’ 12회에서 톱7이 진(眞)을 놓고 마지막 대결을 펼친다. 톱7은 2월25일 결승 1라운드 ‘신곡 미션’에 이어 결승 2라운드 ‘인생곡 미션’에서 인생을 건 무대에 도전한다.

‘인생곡 미션’은 가족, 은인, 꿈 등 자신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주제가 담긴 노래를 선정, 무대 위에서 진심을 풀어내는 라운드다.

‘미스트롯2’ 제작진은 “톱7이 마지막을 앞두고 모든 열정을 쏟아붓는, 사활을 건 무대를 선보인다”며 “인생을 걸고 역대급 무대를 선사할 TOP7을 향한 마지막 투표로 따뜻한 응원과 지지를 보내주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방탄소년단, 데뷔 후 첫 토크쇼...KBS, 29일 방송

방탄소년단이 자신들의 이름을 내세운 토크쇼로 찾아온다.

KBS는 방탄소년단 일곱 멤버 전원이 출연하는 스페셜 토크쇼 ‘Let's BTS’를 기획, 이들이 전해온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집중 조명한다고 2일 밝혔다.

방탄소년단 이름을 타이틀로 건 지상파 토크쇼는 데뷔 후 처음이라고 방송사 측은 전했다.

제작진은 “방탄소년단의 글로벌 아티스

트로서의 면모뿐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일곱 청년들의 솔직한 이야기도 함께 담아낼 것이다”고 말했다.

토크쇼 아니라 방탄소년단의 라이브 무대도 만나볼 수 있고 깜짝 게스트도 등장한다.

신동엽이 단독 MC를 맡고, 장도연이 가세해 특별 코너를 진행한다.

29일 오후 10시40분 KBS 2TV에서 방송 예정이다.

국세청, 모범 납세자 1057명 공개...새 홍보대사에 조정석·박민영

제55회 납세자의 날 기념 감사 행사

16일 납세자 초청 비대면 열린음악회

국세청은 3일 배우 조정석·박민영 등 모범 납세자로 선정된 1057명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는 이날 제55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국세청이 개최한 성실 납세 감사 행사의 일환이다. 국세청은 조 씨·박 씨를 새 홍보 대사로 위촉하고, 오는 16일 모범 납세자를 초청해 KBS 열린 음악회를 온라인 방청 방식으로 비대면 개최할 예정이다.

모범 납세자에게는 ▲세무 조사 유예(순환 조사 대상 범인은 정기 조사 시기 선택 가능) ▲납부 기한 연장 및 납부 고지 유예 시 납세 담보 제공 면제(5억원 한도) ▲인천국제공항 내 ‘모범 납세자 전용 비즈니스센터’ 이용 ▲모범 납세자 증명 발급 및 주요 민원 증명에 수당 이력 표시 ▲모범 납세자 전용 창구 이용 ▲국세공무원교육원 시설 이용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 밖에 코레일·SRT 철도 운임 할

인, 공항 출입국 우대, 각 지방자치단체 및 국립공원 공영 주차장 무료 이용 등 혜택도 있다. 올해부터는 한국무역보험공사 무역 보험료 할인 및 가입 한도 우대 혜택도 새롭게 생긴다.

각 지방국세청과 세무서는 ‘1일 명예 세무서장·명예 민원봉사실장 위촉’ 등 기념행사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축소 실시했다. 불가피하게 납세자의 날 행사를 하지 않는 관서에서는 모범 납세자 표창장을 직접 방문해 전달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또 홈페이지·유튜브·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에서 ‘국세청에 바라는 점 댓글 달기’ ‘모범 납세자·아름다운 납세자 관련 퀴즈’ 등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3일 민원봉사실을 방문하는 1·33·55번재 방문객에게 기념품을 증정한다.

청소년이 세금의 중요성에 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청소년 세금 작품 공모전’(글·포스터·만화·슬로건)을 시행하고, 성실 납세 등을 주제로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

국세청은 “앞으로 국민과의 소통을 더 확대하고,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 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성실 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지수 소속사 “학폭 의혹 사실 확인중...제보 받고 의견 청취”

“사실 여부 및 관계 파악하는 데 시간이 필요함에 미리 양해 구한다”

배우 지수를 둘러싼 학교 폭력 등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면서 소속사 측은 “사실 확인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지수의 소속사 키아스트는 3일 공식 입장을 내고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소속 배우 지수에 대해 작성된 게시물 관련 당사는 본 사안을 중대히 인지하고 사실 확인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선 자택문 시점으로부터 시간이 상당히 흘렀기에 사실 여부 및 관계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필요함에 미리 양해를 구한다”며

“먼저 해당 사안에 대해 안내 드리는 이메일(rpt@keyeast.co.kr)로 제보를 받고 왜곡 없이 사실 그대로 취합하겠다. 또 계시자 및 사안을 제기한 분들이 허락하신다면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사실관계 파악과 더불어 배우 당사자 및 당사는 해당 사안의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다만 이와는 별개로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는 내용 중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부분을 지속적으로 생성 및 게시하는 유포 글은 자체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고 당부

했다. 지난 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배우 지수는 학폭 가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며 지수의 학폭 의혹이 제기됐다.

작성자는 해당 글에서 자신이 지수와 중학교 동창이라고 밝히며 지수가 학교 일진으로 군림했으며 2008년 중3 때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지수와 관련된 추가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이어졌다. 지수가 학창 시절 폭력을 행사하거나 괴롭혔다는 내용은 물론 성폭력 의혹까지 제기하는 주장이 나왔다.

지수는 지난 2015년 MBC 드라마 ‘앵그리맘’으로 데뷔했다. 현재 KBS 2TV 월화드라마 ‘달이 뜨는 강’에 주인공으로 출연하고 있다.

남진, 야외 예능 ‘소문난 님과 함께’ 17일 첫 방송

인생 선생‘님’ 찾아 떠나는 전국 로드 버라이어티 예능 프로그램



MBN 새 예능 프로그램 ‘소문난 님과 함께’가 17일 첫 방송된다.

‘소문난 님과 함께’ 제작진은 “‘소문난 님과 함께’가 오는 3월 17일 수요일 밤 11시 첫 방송된다”며 “영원한 국민 오빠인 남진이 첫 야외 버라이어티 MC로 나서 뜨거운 화제를 모은데 이어 김준호, 장영란으로 향한 3MC 체제를 완성해 한층 신선한 예능 시너지를 기대한다”고 2일 전했다.

‘소문난 님과 함께’는 ‘행복한 님’, ‘좌절한 님’, ‘대한민국 수많은 인생 선생 님’을 찾아 떠나는 전국 로드 버라이어티 예능 프로그램이다. 전국 각지에 자리한 비경의 ‘맛’을 보는 기쁨과 숨겨진 ‘맛’을 발견하는 재미를 더할 예정이다.

김준호는 이 프로그램에서 그간 쌓아온 MC로서의 내공을 발휘, 남진과 콤피를 이뤄 다양한 님들의 사연을 자연스럽게 진정성 있게 풀어낼 예정이다. 여기에 주체할 수 없는 흥을 가진 장영란이 해피 바이러스를 흠뻑리며 유쾌한 웃음을 준다.